

“‘실력 전남’ 일반고 제2 전성시대 열겠다”

직선 2기 교육감에 듣는다-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전남교육은 ‘실력 전남’을 표방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3일 “교육력을 높여 ‘일반고의 제2 전성시대’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방안으로 독서·토론수업을 통해 미래사회 핵심역량인 논리적 사고와 인성을 길러 당당한 인재로 키우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인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도서벽지 근무자에게만 주된 가산점을 교육력 제고 기여자에게도 준다는 것이다. 섬에서 근무하지 않아도 학생들에게 공부를 잘 가르쳐 성적을 올리면 승진 점수를 주겠다는 것이다. 또 혁신도시인 나주를 중부권 교육특구로 삼아 명문 초·중·고를 유치해 광주는 물론 전국의 우수 인재를 끌어오겠다는 전략도 세웠다.

직선 2기를 열게 된 소감은.
 ▲연거푸 두 번이나 전남도교육감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있게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전남도민과 교육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 1기는 열악한 전남교육의 토대를 닦고 체제를 정비하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 4년은 그 토대 위에서 교육내용을 채우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
 -지난 4년간 정책을 펴면서 아쉬웠던 점은.

▲전남의 교육여건은 매우 어렵다. 특히, 인구와 학생수가 줄고 있는데 해법은 마땅치 않다. 곧바로 효과가 나타나진 않겠지만 해법을 교육에서 찾고 있다. ‘실력 전남’을 통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겠다.

직선 2기 전남교육은 어떻게 달라지나.
 ▲미래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는 학습방법이 독서·토론 수업이다. 전남은 작은 학교가 많아 학생 중심의 독서·토론 수업에 매우 유리하다. 독서·토론 수업의 결과



장만채 교육감 프로필

▲1958년 3월26일 영암 출생 ▲광주제일고·서울대·KAIST 졸업 ▲순천대 교수 ▲순천대 총장 ▲녹색자치포럼 공동대표

무지를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해 일반고에 근무하는 교사가 학생들의 교육력을 끌어올리면 이를 평가해 승진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섬에 가지 않아도 공부를 잘 가르치면 승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모호하고, 특히 논란도 제기될 수 있는데.

▲교육력 제고는 단순히 입시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다. 고교 입학 때 성적과 졸업 때 성적을 비교·평가해 기여도를 판단할 것이다. 평가는 학교장과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전남의 교육력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나주 혁신도시에 교육특구를 건설할 계획은 있다.
 ▲나주 혁신도시를 중부권 교육특구로 삼을 계획이다. 광주교육대 부설 초등학교를 유치하고, 명문 고등학교도 설립할 방침이다. 앞으로 강인규 나주시장과 구체적으로 교육특구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다.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데 전망은.
 ▲농특별 제정은 전남의 열악한 농어촌 교육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지난 1년간 100만인 서명운동을 비롯해 전국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 제출된 상태이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진전이 없다. 국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농어촌 작은학교 지원 조례 제정을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거점고와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은 상충되는 면이 있는데.

▲전남은 농어촌 작은 학교가 75% 이상이다. 초등학교는 아무리 작은 학교라도 학생이 있으면 폐교시키지 않는다. 전남에는 학생 수가 하나도 없는 학교가 4개교다. 하지만 앞으로 학생이 입학할 것을 대비해 학교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다. 올해 입학생 없는 학교가 36개교다. 아무리 작은 학교라도 초·중학교는 학교를 유지하면서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고등학교는 대학 입학과 취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광주·수도권 학생들과 경쟁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안된다. 교과별로 전공교사 배치해야 질 높은 수업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적정규모가 되어야 한다. 지역민의 지지를 통해 고등학교에 한해서 거점고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로 정책을 달리 추진해 교육력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범외노조가 전 전교조와 관계는 변화가 있다. 정부와 갈등이 발생하면 대처는.

▲범외노조 판결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은 엄연한 전남교육 가족이다. 따라서 소통을 통해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또 교원단체에 각종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등 관계를 계속할 것이다.

작은 학교도 학생 있으면 폐교 안할 것

합법적 범위내 전교조 지원 관계 지속

-세월호 참사로 뱃길 교육에 대해 불안해하는데 앞으로 선상무지개학교는 어떻게 되나.

▲선상무지개학교는 전남만이 할 수 있다. 배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수련활동의 경우는 실으면 안하고 버티지만 선상무지개학교는 그럴 수 없다. 선상인 탓에 모든 문제를 자기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또 다양한 학생들과 교류하고 국제적인 시야를 틔울 수 있다. 하지만 세월호 때문에 올해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 안전장치를 더욱 강화하고, 학부모들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면 재추진 하겠다.

-대안으로 구상 중인 열차 무지개학교는 뭔가.

▲올해 겨울방학때 열차 독서토론 무지개학교를 개설할 계획이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독서토론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역사의식 고취는 물론 주요 교과목 학습과 독서토론 등 알차게 준비하겠다.

-학부모와 전남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교육은 학교가 전담할 수는 없다.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직선 1기가 교육환경 개선에 역점을 뒀다면 2기는 교육 콘텐츠를 내실있게 꾸리겠다. 초·중학교는 독서토론을 통해 기초학력을 튼튼히 하겠다. 고등학교는 입시·취업의 경쟁력을 높여겠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 경제부시장 누가 맡나

퇴임관료·정치꾼·특정 고교 출신 거론 뒷말 무성

중앙 경제 전문가 영입 노력 적임자 못찾아 고심

市 정기인사 이달 말 단행

민선 6기 광주시의 경제 정책을 진두지휘할 정무직 경제부시장 선임에 앞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중앙부처 경제전문 관료를 영입하겠다는 계획에서 벗어나 정치권이나 기웃거리려는 퇴임 지방관료가 거론되는가하면 특정 고교 출신이 지천타전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하지만 월급과 업무추진비 등 연간 수익 원대의 활동비를 지급받고 이전 차량과 운전원, 비서까지 제공되는 경제부시장 자리를 정치 지망생들이 들어 앉을 경우 고교 출신이 뒷전인 채 시민의 세금만 받아 자신의 표밭 다지기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그동안 송인성 희망광주 준비위원장, 서정성 전 광주시의원, 이해명 누리문화재단 이사장, 정영재 광주평화재단 대표, 정찬용 전 참여정부 인사수석 등이 정무직 부시장으로 거론돼 왔다.

하지만 이 같은 사전 인사설에 부담을 느낀 송인성 위원장은 지난 30일 준비위원 활동 종료와 함께 낙향했고, 윤 시장 당선의 ‘일등공신’으로 알려진 서정성 전 시의원도 측근 인사, 보은인사 등의 짐을 털어 주기 위해 취임시 당일 6개월 임정으로 캄보디아 광주진료소로 봉사활동을 떠나는 등 대부분은 부시장직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정무직부시장을 민선 5기와 같은 경제부시장 체제로 유지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산업자원부 등 중앙 경제부처 경제 관료의 영입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태다.

실제 윤 시장은 지난 1일 취임식 후 기자회견을 방면해 “기획재정부와 산업자원부 등 경

제부처 출신 중에서 (경제)부시장을 영입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의 도움을 받아 테스크포스팀까지 구성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중앙 경제 관료의 영입이 우선이지만 동시에 지역 출신 관료나 정치 지망생, 지역 내 특정 고교 출신 등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특히 최근 유력한 경제부시장 대상자로 떠오른 A씨 등은 전형적인 관료출신으로 선거출마 경력 등이 있으며 앞으로 두 거추차기 각종 선거에 나올 인사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윤 시장의 경제 정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 내 퇴임 관료보다는 중앙 인재를 발굴해야 한다”면서 “부시장이 되어서 향후 국회의원 선거나 출마하려고 활동하려는 인사들은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무직인 경제부시장은 연 최대 9000만원의 임금과 1500만원의 수당을 받고, 업무추진비로 1억1600만원을 지급받는 등 최대 2억2000여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중대형급(2700CC 이하) 관공차와 운전원, 수행원, 비서 등과 34평형 상당의 관사(본인 희망사)를 제공받으며, 경제 관련 2개 국을 관리하는 막강한 권한도 갖게 된다.

한편 광주시는 이달 말 민선 6기 첫 대규모 정기인사를 단행한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이날 “윤장현 시장이 민선 6기 현안 사업들의 빠른 해결을 위해 인사를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면서 “오는 22일까지 새로운 조직개편안에 대한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인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서울시 혁신정책 선도 협약

윤장현-박원순 시장 문화·경제 등 8개 과제 추진

윤장현 광주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두 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윤 시장과 박 시장은 3일 광주시청에서 ‘서울-광주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문화·관광, 체육, 혁신, 경제 등 4개 분야 8개 협력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두 도시는 특히 2015년 9월 개관 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관광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고 ▲서울시민 대상 전담투어 문화기행 특별여행 운영 ▲서울지역 학교 대상 문화전당 맞춤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서울 거주 단체관광객 전담 입

장료 할인 등에 합의했다. 또 2015학계유니버시아드 성공 개최, 혁신정책 공동 추진, 공무원 상호교류, 폐기물 기초시설 운영, 청년창업 공유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 제품 공동판매 등에도 합의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날 “서울과 지방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적·물적 교류협력 사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 광주와 서울이 첫 우호교류협력력을 체결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NEW
수출만능! 정품 사용이유만!

당신이 가장 예쁜 날은 바로 오늘이어야 하니까

갈색 솔잎 에너지로 맑고 생생한 한울피부-한울 율러원액

당신이 가장 예쁜 날은 항상 과거에만 있나요?
 기존 대비 3.8배* 농축된 갈색 솔잎 추출물을 담아 새로운 한울 율러원액을 만나보세요!
 갈색 솔잎 추출물이 무더진 피부를 깨끗하고 피부 속 깊이 촉촉한 생기를 전달하니까
 맑고 생생한 피부를 가진 오늘이 당신의 가장 예쁜 날이예요.

*100% 정품! 인공 향료 함유량 0.05% 이하

맑고 생생한 오늘피부를 위한 5가지 피부 개선효과

1. 피부가 촉촉하게 재워지는 느낌이다	100%	2. 피부가 부드럽고 매끄러워졌다	99%
3. 윤기가 나빠져 한결 어여보이는 것 같다	99%	4. 피부가 탄력 있게 되었다	99%
5. 피부가 차가워지고 시원하게 느껴진다	98%		

인공 향료 없음, 인공 색소 없음, 인공 착색제 없음, 인공 보습제 없음, 인공 방부제 없음, 인공 착색제 없음, 인공 보습제 없음, 인공 방부제 없음

www.pms.co.kr